

삼성전자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

일상·가족 돌보는 새로운 가전... E·C·S 플랫폼 'AI 홈' 혁신

(Easy to use·Care·Saving)

냉장고 등 비스포크 AI 신제품 선보여 '스마트싱스' 초연결 생태계 결합 양자 내성암호 적용... 보안성 강화



문종승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 개발팀 부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에서 기술 전략과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에서 2025년형 '비스포크 AI' 신제품을 선보였다. 비스포크 AI는 삼성전자의 AI 기술과 '스마트싱스' 초연결 생태계를 결합해 가전제품 간 유기적인 연결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AI 홈', 나와 가족을 돌본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사용자의 일상과 가족을 돌보는 'AI 홈' 시스템이다. 삼성전자는 AI 홈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Easy to Use) ▲사용자를 돌보는(Care)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Saving)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비스포크 AI 가전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스마트싱스'와 연동해 모든 기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또 ▲와이파이 ▲직비 ▲매터 스펙트럼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해 별도의 허브 없이도 조명, 스위치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연결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보이스 ID' 기능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를 개별적으로 인식해 각자의 일정과 사진을 불러 오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확인하는 '내 폰 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생활 안전 기능도 강화됐다. 일정 시간 동안 냉장고나 정수기 등의 사용이 감지되지 않거나 빈집에서 가전제품 사용이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낸다. 또 로봇청소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집 안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 AI로 성능 극대화... 신제품 대거 공개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성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공개했다.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는 컴프레서와 반도체 소자가 함께 작동하는 'AI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을 탑재해 냉장 성능을 극대화했다. 9형 터치스크린을 장착해 일정, 날씨, 추천 식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AI 비전 인사이드 2.0' 기능을 통해 자



삼성전자 모델들이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웰컴 투 비스포크 AI' 제품 체험 행사에서 AI 가전 신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비스포크 AI 제트' 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티م' 로봇청소기, '인피니트 AI 콤보' 세탁건조기

동으로 식재료를 인식하는 범위를 기존 33종에서 37종으로 확대했다.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는 국내 최대 25kg 세탁 용량과 18kg 건조 용량을 갖췄다. 열교환기 구조와 예열 기능을 개선해 패속 코스 기준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단 79분 만에 완료할 수 있다. 프리미엄 라인업인 '인피니트 AI 콤보'는 히든 도어 디자인과 고급 메탈 소재를 적용해 디자인 차별화를 꾀했다.

청소기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400W의 흡입력을 갖춘 '비스포크 AI 제트'가 소개됐다. 일반 모드에서 단일 배터리로 최대 100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닥 유형뿐만 아니라 공간 형태까지 인식해 최적의 흡입 모드를 자동 조정하는 'AI 모드 2.0'이 탑재됐다. 또

'비스포크 AI 스티م' 청소기는 특허 받은 모터 기술로 흡입력을 2배 이상 강화했다. 액체·공간 인식 기능과 자동 급배수 시스템을 적용해 청소 편의성을 높였다.

◆ 보안은 '강화', 친환경은 '지속'

삼성전자는 AI 가전의 보안성과 지속 가능성도 대폭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보안 솔루션인 '녹스(Knox)'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적용하던 '녹스 매트릭스'를 전 가전기로 확대했으며,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을 통해 외부 위협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녹스 매트릭스는 블록체인 기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보안 상태를 상호 점검하다가 외부 위협이

감지되면 해당 기기의 연결을 끊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아울러 개인 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저장하는 '녹스 볼트'를 도입했다. 양자컴퓨팅 공격에 대비한 '양자 내성 암호' 기술도 적용해 보안성을 한층 높였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인증 기업 'UL 솔루션즈'의 IoT 보안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최다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달 출시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도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하는 등 향후 출시될 2025년형 제품에도 순차적으로 보안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포스코와 협업해 재생 소재 함량을 높은 범용 강판을 공동 개발했으며, 폐가전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에어컨 부품으로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또 폐스티로폼을 포장재로 재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문종승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 개발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혁신을 넘어 기기 간 연결과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를 이해하고 돌보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AI 홈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혁신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해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포스코, 철강 부산물 재활용... 순환경제 기여

제강슬래그 활용 아스팔트 포장 폐플라스틱 결합 철도 침목 개발



광양제철소가 제강슬래그를 골재로 활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제철소 내 도로를 포장하고 있다.

포스코가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순환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슬래그, 더스트, 슬러지 등 여러 부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중 쇳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고 남은 물질인 슬래그는 제철소 부산물 발생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부산물이다. 현재 천연골재의 고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구성이 높은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이 주목받고 있다. 제강슬래그는 일반

골재에 비해 모양이 비교적 일정하고 각진 형상을 가지고 있어, 도로포장에 적용할 경우 맞물림 효과에 의해서 도로의 내구성이 일반 아스팔트 포장 대비 최대 2.2배인 64개월까지 늘어난다.

포스코는 이러한 시장 수요와 물질적 우수성을 파악해 국내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기업과 협업해 제강슬래그를 아스콘 골재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국도 3호선 5개 구간 등 아스팔트 도로 포장에 제강슬래그를 적용했다. 지난 2월 광양제철소 내 도로 포장 시에도 제강슬래그를 활용했다. 제강슬래그를 활용해 복합소재 개발한 사례도 있다. 포스코의 사내벤처 기업인 이움텍은 제강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을 결합해 새로운 차원의 철도 침목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2019년 포스코 사내벤처 1기로 시작한 이움텍은 박영준 대표의 주도로 제강슬래그와 폐플라스틱을 주요 소재로 하는 복합재 '슬래스틱'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움텍은 기존 침목에 사용되는 고가의 유리섬유 소재를 일부 슬래스틱으로 대체해 원가절감을 극대화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쓰오일은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필렌 분리타워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필렌 분리 타워는 높이 118m, 직경 8.5m, 무게 2370톤에 달해 국내 석유화학 설비로는 사상 최대 높이를 자랑한다.

/에쓰오일

두산에너지빌-원익IPS, 금속 AM 기술교류

(적층제조)

검증용 시제품 설계·제작 계획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금속 적층제조(AM) 기술을 도입한 이래 사업 영역과 파트너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적층

제조는 금속 분말을 층층이 쌓아 금속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술로 '3D 프린팅'으로 불리기도 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반도체 장비 전문회사 원익IPS와 금속 적층제조(A

M)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사는 차세대 화학증착설비(CVD)에 적용할 AM 제작 부품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나아가 검증용 시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활동

현지 조조사 방문... 기술 협력 추진

일 밝혔다.

한화오션이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 현대화를 위해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8조원 규모에 달한다.

한화오션은 지난 25~26일 이틀동안 폴란드 그단스크와 그드니아에 위치한 레몬토바 조선소 및 나우타 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해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선종 다각화·친환경 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30

이번에 한화오션이 폴란드 현지 조선소를 방문한 목적은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는 물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한화오션 해외사업단 박성우 상무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폴란드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 및 해군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